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세 동안은 험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옥족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안식일 준수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적인 두 가지 자세를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안식일을 지키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당신은 발견하는가? 이것은 철저히 관계 중심적인 특성을 전제로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6일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다. 그것은 6일과 철저히 구분된다는 면에서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6일 간 '험씨' 살지 않으면 7일의 안식은 의미가 없음을 말한다. 셋째는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보여주나? 철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모범에 기초하고 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그분이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를 짓은 금과 삶을 짓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등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옛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불지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에 육신의 필요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음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저 우리로 그저 쉬라는 명령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 외에는 그저 휴식만을 취하여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통하여 다시 한 번 깊게 묵상함으로 안식일을 지킴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왜 모세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어떤 사람들이 위한 행동은 무엇이었으며 모세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믿음으로 미리 양식을 준비하게 요구하신다. 평소와는 다른 경우이다. 평소에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라면! 그렇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상식적인 삶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보호, 인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합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입이 이루어 졌느니라 제 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렸으되 하나님은 제 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굴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렸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주어지는가? 일까?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도 왜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결과들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깊게 묵상함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문은 누가? 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명령된 제 칠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직 그 안식이 남아있다 함은 무슨 뜻인가?

안식일 준수와 명령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참된 안식' 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 맛보기 위함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과 같이 우리도 사모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말씀하셨다. 그 안식은 이 땅에서의 안식의 완성이며 하나님과 함께 쉬는 참된 안식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주 주의 날을 지키며 그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미리 맛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당신의 오늘 삶 가운데 이런 완전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는 일이 풍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